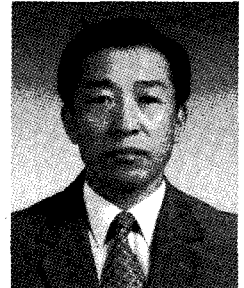




배추포장화 정책방향 먼저 배추포장 필요성 인식부터



농림부 유통정책과
농업사무관 박 백 화

목 차

- 1. 배추포장화의 시급성과 필요성
- 2. 배추포장화의 기대 효과
 - 가. 농촌, 농민에게 주는 실리
 - 나. 배추 유통업자에게 주는 실리
 - 다. 배추 소비자에게 주는 실리
 - 라. 배추 유통경제상 실리 종합
- 3. 배추포장화의 과제와 대책방향
 - 가. 문제점과 과제
 - 나. 대책방향
- 4. 배추포장화 조기정착을 위한 역점추진 시책
 - 가. 배추포장화 여건조성
 - 나. 생산자, 농민 지원시책
 - 다. 도매시장과 유통중사자 지원시책
 - 라. 소비자보호와 협조사항

1. 배추포장화의 시급성과 필요성

농산물의 표준규격화와 포장출하는 이제 선진적인 유통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농산물 유통부에서 농산물의 판매 및 구매기능을 담당하는 유통주체와 저장 및 수송, 가공 등의 물적기능이 중요하였으나, 세계 무역 자유화, 정보화 진전에 따라 물류표준화, 상품표준화 등 유통 조성기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영농규

모가 영세하고 규격포장화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부족한 우리농업 현실을 감안할 때 농산물 수입의 지속적 증가와 유통서비스개방 등 유통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처하고 소매 유통 및 물적유통 혁신을 위해서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표준화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지만, '70년대 이후에 사과, 배, 감귤, 쌀 등 주요 품목에 대해 표준규격을 개발 보급하여 단품음. 목상자를 골판지상자로 전환토록 노력하여 왔으며, '80년대부터 대부분 농산물의 표준규격을 제정·고시하여 과일과 과채류를 중심으로 표준 거래 단위에 의한 골판지상자의 사용이 일반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과, 배, 감귤 등 과일류와 참외, 오이, 토마토 등 과채류의 경우, 전체 유통물량중 90%이상이 표준거래 단위로 포장거래 되고 있지만, 고추, 마늘 등은 아직도 전통적 거래 단위인 마대, 묶음 등으로 거래되고 있어, 등급 표준화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배추, 무, 파 등 채소류의 경우, 표준거래가 정착되어 있지 않아 농산물 규격포장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이들 품목은 상품가치에 비해 부피가 크고 무거우며, 취급이 불편하고, 기상조건 및 재배면적에 따라 수급조절이 곤란하다. 또한 도매시장이나 소매점포에서 쓰레기 처리문제, 수송문제, 선별 재포장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농산물 유통개선의 최대현안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무, 배추 등 채소류를 산지에서 다듬고 선별하여 규격포장화를 이루고 도매시장과 소비자까지 표준거래제도

와 물류표준화를 정착시켜 수송·하역·쓰레기문제 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배추의 포장 상품화는 농산물 유통선진화의 척도가 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유럽, 대만 등 농산물유통 선진국에서는 배추를 비롯한 거의 모든 채소를 산지에서부터 골판지와 목상자에 정선(다듬기)·포장하여 도매시장·소비지 소매 점포까지 유통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한 배추포장화의 필요성을 요약하면

- 소비지의 쓰레기발생방지와 도매시장 환경개선
- 골판지 포장출하로 배추 등 상품성 향상과 감모축소
- 공정거래실현과 유통마진 축소로 유통선진화 유도
- 상차, 운송, 하차과정에서 기계화 가능으로 유통비용 절감
- 시장개방화에 대비한 유통경로 다원화로 경쟁력 제고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배추의 상품성 저하방지, 감모축소, 하역기계화촉진, 유통비용 절감과 유통효율제고 및 유통선진화를 위하여 조기에 반드시 정착시켜야 할 과제인 것이다.

2. 배추포장화의 기대 효과

가. 농촌, 농민에게 주는 실리

우리나라 배추재배 농가들은 대부분 영농규모나 자금력, 조직력이 약하여 수집상 등에게 발매기 거래하거나 출하시 정확한 갯수도 모른채 거래되며, 경매시 산(넙)을 더 주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왔으나, 배추를 포장출하하게 되면 정확한 물량이 거래되어 공정성이 확보되어 제값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비포장 배추와 포장배추 경제성 분석 기초자료를 비교(5톤/차)해 보면, 총적재 포기수 = 비포장시 3,000포기 : 포장시 2,850포기(차이: △150포기), 훼손율 = 15% : 2%(차이 : △13%), 순적재 포기 = 2,550포기 : 2,793포기(차이: 243포기), 포기당 경락가격=833원 : 1,060원(차이: 227원)으로 출하량과 가격에서 이득이며, 궁극적으로 불필요한 중간유통비용이 출하농민과 소비자 이득으로 돌아가게 된다.

나. 배추 유통업자에게 주는 실리

배추의 유통에 관여해온 산지수집상, 도매법인, 중도매인



▲ 일본은 배추소비량 90%를 골판지상자로 포장하여 예냉·출하하고 있다.

등은 그동안 주로 비포장 배추로 거래하여 시장내에서 다듬고 상품별로 구분 판매하므로써 많은 이득을 취해 왔었기 때문에 당장에 배추를 포장유통하게 되면 선별마진이 감소하여 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여겨, 이에 소극적일 수 있다. 그러나 농산물 수입과 유통시장개방 등 물류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키우지 않게 되면 생산자나 유통인들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배추 등 농산물의 포장화는 수송, 상차, 하역, 보관작업의 기계화, 자동화를 할 수 있어, 작업능률과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예를들어 배추 1트럭(12톤) 하차시간을 비교해보면, 비포장 배추는 손으로 던지고 받아 정리하는데 2인이 2시간 소요되지만, 포장배추는 지게차로 혼자서 20분만에 하차 할 수가 있다. 또한, 산지에서 절임을 다듬어 포장출하하게 되므로써 도매시장 발생쓰레기의 1/3정도를 줄일 수 있어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효과가 크며 악취발생을 막을 수 있는 등 환경문제도 크게 개선 할 수가 있다.

예) 가락시장 쓰레기발생량 :

(’96) 15만톤(처리비용 57억원) →

(’97) 8.8만톤(처리비용 63억원)

배추 포장화는 인력에 의한 포기단위 하역에 비해 시간과 인력 절감 이외에도 차량대기시간 단축, 시장공간(30%상당) 활용 등으로 물류비의 40%정도를 절감할 수 있고,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신용거래, 통명거래가 가능한 선

진유통을 실현함으로써 대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배추 소비자에게 주는 실리

김치문화가 발달한 우리민족은 연중 배추소비를 많이하고 있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신선하고 질 좋은 배추를 구입하기 위하여 실물을 만져보고 꼼꼼히 확인한 후, 구매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고, 포장배추는 오래된 상품으로 인식하거나 내용물을 불신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배추포장화 시책을 추진한지 2-3년에 불과하여 아직 포장배추에 대한 인식이 덜 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규격포장 배추는 소비지쓰레기 발생량이 적으므로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가정마다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조리하기에 편리하며, 주부들의 일손을 덜어 줄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포장배추의 신선도가 월등히 높아 비포장품보다 3-4일 더 보관이 가능하여, 배추의 상품성을 유지할 수 있고, 유효기간 연장효과가 발생하여 오랫동안 신선 농산물을 구매 이용할 수가 있다.

비포장배추는 유통과정중 다듬기비용, 하역비, 쓰레기유발부담금 등을 유통업자를 통하여 지불하게 되고, 유통마진을 포함한 중간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었으나 포장배추로 유통할 경우 거래과정이 투명해지고 공정거래가 실현되어 불필요한 유통비용이 절약되므로써 그 이익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라. 배추 유통경제상 실리 종합

법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 등 쓰레기줄이기 대책에 동참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공판장에서 쓰레기 줄이기와 농산물 포장규격 출하촉진이 과제로 채택('96)되어 확대 추진이 필요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98. 1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에서 배출하는 수분함량 75% 이상 쓰레기는 쓰레기 매립장 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유통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규격포장화가 전제되어야하며, 물류표준화에 의한 하역기계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겠고 생산자, 유통중사자, 소비자들이 단기적인 판매이익 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올바

른 거래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개선과 국가경제 이익을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IMF이후 국내 유통시장 및 금융산업 등의 개방으로 더욱 열악한 조건하에서 외국 유통업체들의 국내진출이 확대되고 대형 할인점 및 물류센터 개장 등 유통경로 다원화에 따른 경쟁력을 제고시켜야만 국가경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한 간접적 이익을 계속적으로 거두어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3. 배추포장화의 과제와 대책방향

가. 문제점과 과제

'96년 8. 4 강원도 고냉지배추의 골판지포장화 적성 수송 시험 출하를 시작으로 '97년 1월부터 본격화('97. 1. 24부터)한 배추포장화 시범사업이 4월까지는 순조롭게 추진되었으나, 중도매인의 집단 경매 거부 등 유통주체들의 이해가 상충되고, 포장화되면 손해 본다는 생각을 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부진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그 요인으로는 출하자는 포장재비, 인건비 추가만큼의 가격 미상승으로 기피하고, 도매법인은 중도매인과 하역노조 반발을 의식하며, 중도매인은 "선별마진 - 기대이득" 축소와 거래 실패가 투명하여 기피하고, 하역노조는 포장·기계화로 인력감축과 수입감소를 우려하며, 소비자는 포장품은 오래된 상품으로 인식하거나 내용물을 불신하는데 있다고 본다.

또한, 산지출하단계에서의 포장화 기반이 미흡한 것은 무, 배추 등 채소류 대부분을 발떼기거래(배추는 80%이상)하고 있고 생산자인 농업인은 포장화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품목 특성상 포장·하역기계화에 어려운점이 있으며, 산지 집하 및 포장시설의 절대부족으로 우천시에는 포장작업이 곤란하고, 포장화에 따른 추가비용 만큼의 적정격락가격 형성이 불확실한데 기인하고 있다.

한편, 포장화 시책도 경제원리에 의거 적정가격 형성이 가장 중요하나 시장중사자의 비협조로 시장원리에 의한 가격형성이 안되어 포장화에 따른 이익이 출하자, 소비자에게 분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도매시장 관리에 있어서도 비포장품에 대한 사전 제재가 효과적인데 도매시장내에 건조기 등을 설치하여 들여온 쓰레기를 처리하는 등 비포장품 출하제재를 회피하거나 다듬기 금지, 불공정 거래자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도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소비자

유통여건과 구매형태가 미성숙되어 포장품이던 비포장품을 관계하지 않고 포장품도 개장하여 확인 구매하는 습관이 있는 등 쉽지 않은 문제점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나. 대책방향

배추포장화가 산지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이 있는 만큼, 각분야 관련자들의 중지를 모으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 '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들이 주축이 되어 비포장품 또는 비규격품의 도매시장 반입을 제재하고 포장품과 비포장품의 경매순서 및 경매가격 등을 차별화 하므로써 '85년 이후부터는 대부분이 포장화를 정착시킨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우리로 배추포장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도매시장법인이나 중도매인들에게 미룰 것이 아니라 생산자들은 산지에서부터 다듬어서 선별 포장출하하여 포장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신속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며, 소비자들도 포장화된 배추를 솔선 구매하는 등 각자마다 의식의 대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에서도 배추포장화를 위한 정책자금지원, 배추의 수급안정 및 가격의 안정과 과잉시 기타업계등에 따른 각 분야별 업무연계 등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시책들을 강도높게 추진해 나갈 것이지만,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유통종사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본다.

4. 배추포장화 조기정착을 위한 역점 추진 시책

가. 배추포장화 여건조성

먼저, 배추등 농산물 유통효율 증대를 위하여 단위화물 적재시스템(ULS통칙)에 맞도록 '98까지 124개 품목('97까지 개정 : 배추포함 86개품목)의 농산물 표준출하규격을 제·개정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산지포장센터·간이집하장·소비지 물류센터 및 대형유통업체 등에 포장품을 우선 구매토록 유도하여 연계추진할 것이다.

산지유통시설 건설을 지속 지원하고 물류표준화 사업비를 확대지원함으로써 기기·장비의 확충과 시설개보수를 추진



▲ 우리나라도 과실류 포장화에 이어, 상추도 골판지상자 포장으로 출하되고 있다.

함과 아울러 포장화의 필요성 등을 출하자·유통종사자·소비자 등에게 지속적인 지도교육과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배추포장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나. 생산자·농민 지원시책

배추포장화 제도를 조기에 정착 시키고 출하농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포장재비 일부를 지원하는데, 농검, 농협, 시군 합동으로 생산자조직을 평가하여 규격포장품을 출하 하는 최우수조직을 집중지원하여 사업효과를 배가시켜 나갈 계획이다. 농협의 우수작목반 및 시범농협을 대상으로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고 계약재배 물량에 대해서는 포장출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또한 소비지 쓰레기를 줄이고 불필요한 운송비 절감과 유통비용 등을 줄이기 위하여 산지에서부터 선별포장이 이루어 지도록 생산자 조직별로 자율검사원을 위촉하고 자발적인 자율검사를 실시하여 품질고급화와 신뢰성을 제고토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파렛트, 지게차 등 하역기계화가 가능한 물류시설과 기기·장비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물류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하며, 채소류 생산·출하조절 기획단을 설치하여 지역별·시기별 생산·출하 조절량의 계획적인 조정으로 생산자·농민지원 및 보호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다. 도매시장과 유통종사자 지원시책

배추를 비롯한 대부분의 농산물은 전국 도매시장과 이에 관련된 유통종사자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며, 이곳을 거치지 않고는 배추포장화 시책 등은 정착될 수가 없으므로

그 중요성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배추포장화가 이룩되려면 산지부터 포장출하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도매시장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도매시장은 하역기계화가 가능한 덕(Dock) 시설물 등 물류표준화시설을 의무화하고 기존시설은 개보수를 하여야 하며, 여기에 필요한 시설개보수비나 물류표준화할 수 있는 하역 기기장비(파렛트, 지게차 등)나 시설비를 우선하여 지원 할 것이다.

도매시장 하역은 대부분 비능률적인 하역노조의 인력하역 방식이므로 기계화 할 수 있는 하역전문용역회사 체제로 전환하여 신속하고 능률적인 하역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매시장설립자, 도매법인 및 중도매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데, 즉 포장품에 대한 우대와 비포장품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포장품우대 방안으로는 쓰레기 유발부담금면제, 교통최적지 배분 우선경매, 하역료 차등부과, 도매시장 평가시 반영하여 우수법인 등에 정책자금을 우선지원토록 하는 것이다.

비포장품에 대한 제재로는 쓰레기유발부담금인상, 쓰레기종량제 확대시행, 다듬기금지, 비포장품 후순위경매, 경락가격 차별화, 정책자금 지원 중단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97부터 수도권 장인 가락, 구리, 안양도매시장에 그동안 포장화가 안되었던 배추, 무 등 포장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배추를 포장출하하는 모든 출하자에게 포장재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국의 공영도매시장으로 확대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비포장품은 시장반입을 제재하게 될 것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배추 포장화에 익숙해 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유통시장을 비롯한 모든분야가 개방화된 현 상황에서 재래방식의 유통체제로는 경쟁력이 뒤떨어져 살아남을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유통인 스스로가 비포장 농산물 출하를 자제토록하고, 시장내 다듬기금지 등 스스로 의식개혁과 기능조정을 통하여 투명한 거래가 정착되도록 하고, 적정한 수수료, 정당한 유통이윤을 추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영농규모가 영세하고 농가당 출하물량이 소규모여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점진적인 수송차량을 대형화(8톤,

11톤)하므로써 소형차 수송으로 인한 수송비 및 물류비를 절감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라. 소비자보호와 협조사항

소비자들이 좋은 상품을 싸게 구입하려는 심정은 당연한 일이며, 소비자가 외면하면, 생산자건, 유통종사자들이 설 땅이 없어지므로, 소비자에게 믿음이 가고 편리하며 질이 좋은 상품을 공급해 주어야만 신용 거래. 투명거래가 가능해져 유통선진화를 이룰 수가 있게 된다.

산지의 생산자단체 등이 선별포장과 자율검사를 실시하여 출하하고, 도매시장별 품질검사실 및 품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내용물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저급품을 넣거나 속박이품이 발견되면 경매가격차감, 명단공개통보 및 도매시장 출하제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므로써 소비자 보호와 신뢰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배추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중간 유통비용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분산되도록 하여야 하며, 유통단계와 유통 마진을 축소토록 하므로써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에게 도움이되고 국가 물류비와 국가경제에도 이득이 될 수 있게하여 해외유통업체와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반드시 이룩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선진유통한국을 이룩하기 위하여 유통관련 각분야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하는 바이다.

韓國골板紙包裝工業協同組合 附設 韓國包裝·物流研究所 設置 案内

1. 設置 年 月 日 : 1994. 9. 2
2. 研究事業
 - ① 포장·물류 경제이론 연구체계화
 - ② 포장·물류 기술이론 개발정립
 - ③ 포장·물류 규격화·연구보고서 간행
 - ④ 포장·물류 국제회의·토론회
 - ⑤ 포장·물류 컨설팅
3. TEL (02)594-0381~4
FAX (02)594-1310